사람을 다시 보다, 세상을 연결하다, 내일을 준비하다

JEONJU National Museum 국립전주박물관

보 도 자 료

누구나,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박물관 MUSEUM FOR YOU

보도 일시	2025. 9. 1.(월) 10:00	배포번호	국립전주박물관 2025-21		
담당 부서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책임자	팀장	송은아	063-220-1008
		담당자	팀원	김미름	063-220-1009

국립전주박물관 스물아홉 번째 가을날의 뜨락음악회

- 관악과 현악의 아름다운 조화, 정취 넘치는 가을밤의 무대 -

- 9월 6일(토) 오후 7시, 전주박물관 옥외뜨락에서 개최 -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오는 9월 6일(토) 오후 7시, 박물관 옥외뜨락에서 스물아홉 번째 가을날의 뜨락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더 뉴바로크 컴퍼니’와 ‘룩스 목관앙상블’ 두 팀을 초청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악과 현악 연주의 아름다운 조화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더 뉴바로크 컴퍼니는 바로크 음악과 타 예술장르, 학문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고 바로크 바이올린 연주자 최현정을 비롯해 바로크 첼로 장혜진, 하프시코드 최현영이 함께 ‘바로크악기로 듣는 춤과 자연의 소리’를 주제로 일곱 곡을 선보인다.

또한 룩스 목관앙상블은 오보에 손연지, 플루트 김선일, 바순 이준철, 클라리넷 김종철 등 목관악기로 모인 네 명의 연주자가 함께한다. 재즈와 탱고, 익숙한 영화음악 등 시대를 초월하는 다채로운 음악 여섯 곡을 통해 목관악기들의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사중주를 연주한다.

‘가을날의 뜨락음악회’는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과 사회적기업 마당(이사장 최동현)이 공동으로 기획해 매년 선보이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

연이다. 일상 속에서 즐기는 공연,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공연을 지향하며 지난 1997년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첫 무대를 연 이후 올해로 스물아홉 번째를 맞았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악 앙상블과 클래식, 재즈,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일상 속의 예술을 선사해온 '가을날의 뜨락음악회'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웃과 함께 만드는 음악회'로 자리 잡았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가을의 문턱에서 낭만적인 뜨락의 정취와 음악을 통해 가족, 지인 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박물관 누리집 또는 전화(063-220-100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붙임: 행사 포스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문화행사팀 김미름(063-220-10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사 포스터**

국립전주박물관과 마당이
함께하는 스물 아홉 번째
가을날의
뜨락음악회
더 뉴바로크 컴퍼니
바이올린 최현정 첼로 장유진
하프시코드 김재연
룩스 목관앙상블
오보에 손연지 플루트 김선일
바순 이준철 클라리넷 김종철
2025.9.6 토 저녁 7시
국립전주박물관 뜨락
국립전주박물관
사회적기업 마당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